



강진 김명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광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제15회 보성차밭 빛축제 '성료'

지난해 12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간 겨울밤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았던 보성차밭 빛축제가 지난 1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차밭 빛축제는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10만2천여 명이 다녀가며 작?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천년보성, 천송이 빛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한국차문화공원을 화려하게 불을 밝힌 이번 빛축제는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한 차밭과 차밭 농성을 따라 비탈면에 화려한 빛물결과 미디어 영상으로 이색적인 낭만을 연출했으며, 한국차박물관 광장에 차나무를 형상화한 디지털 차나무 LED조형물과 밤하늘을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무빙 라이팅쇼, 빛으로 꾸며진 풍평관 등이 함께 어우러져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또한, 수백만개의 LED 전구가 빛을 밝히는 은하수빛 터널은 지난해보다 더욱 길어져 연인, 친구들과 소풍카드를 매달 수 있고, 낭만적인

천송이 빛으로 관광객 10만2천여 명 유혹해 겨울 명품축제로 거듭나...지역경제 효과노릇



산책도 즐길 수 있게 했다.

주말에는 불, 음악, 레이저 조명이 어우러진 파이어판타지 공연과 실내정원의 공룡을 이용한 가든판타지 공연을 펼쳐 관광객들에게 좋

은 추억을 선사했다.

아늑한 공간으로 구성된 문화장터는 화덕체인과 주전부리 코너, 농특산품 판매장을 추위에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방문객의 호

평을 받았다.

아울러, 제2축제장인 '울포술밭 낭만의거리'에는 큐브 미디어퍼사드와 은하수 조명, 공룡·뿔단배 조형물을 설치하여 겨울바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오던 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입장권을 판매하였으며, 입장권은 다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노릇을 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해 그동안 고질적으로 겪어왔던 교통·주차난을 해소하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는 파이어 판타지 공연과 미디어퍼사드 등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이 만족감을 나타냈다"며, "올해에도 더욱 아름답고 환상적인 빛축제를 기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겨울 명품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신안군, 초·중학생 미국 어학연수 실시

미국 오코티오 리지 초교·베일아카데미 중학교 수업 참여



겨울방학을 맞은 신안군 관내 초등학교 10명과 중학교 10명은 신안군과 신안군정학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2차례 설명회를 갖고 1개월 일정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베일) 오코티오 리지 초등학교와 베일아카데미 중학교로 12일 출국하였다.

이번 어학연수는 프로그램 참여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문화체험과 어학연수 등 값지고 소중한 체험을 하고, 오는 2월 11일 귀국한다.

신안군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및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응시 원서를 접수 받아 영어지필 기술시험을 치러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10명 총 20명을 선발 하였다.

이들은 미국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로 생활하면서 미국의 오코티오 리지 초등학교와 베일아카데미 중학교에서 4주간 정규 수업에 참여해 현지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영어실력을 쌓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어학연수에 참석한 학생들은 외국 문화 체험과 영어연수를 통하여 원래 한 가지관 확립과 학습동기 부여로 고등교육이나 진학 없는 외국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영어권 문화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켜 영어학습 성취도향상과 자기 주도형 학습 분위기 실현으로 세계를 주도할 국제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군, 찾아가는 복지 강화한다

올해 읍·면 맞춤형 복지 전용차량 12대 추가 배치

고흥군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올해 읍·면 맞춤형 복지 전용차량 12대를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2017년 맞춤형복지 전용차량 4대를 배치해 읍면 방문상담을 통해 이른 복지 성과를 전 읍면으로 확대하고자 기획되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위해 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 복지인력이 이동력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찾아가는 방문상담 복지서비스가 실행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전 읍면에 맞춤형복지계를 설치하므로 군에서만 처리했던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읍면에서도 직접 시행함에 따라 그에

따른 사업비도 읍면별 840만원씩 총 1억 3,44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교육·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해 나가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을 인정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높인다는데 목적이 있다.

군은 이번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전용차량 배치로 방문상담 강화 및 사각지대 신속 발굴·지원 등 복지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충충하고 든든한 복지고흥 만들기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영광군, 강소농 육성대상 농업경영체 모집

영광군은 2018년 강소농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를 2월 12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강소농'은 전업농들에 비해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업의 한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체간 협력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 경영 컨설팅, 소모임체

활동 등을 지원하며, 소규모 농가의 어려운 점인 판로개척이나 마케팅 활동 등을 여러 농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에는 영광군 강소농 자율모임체인 '참농군'

과 '논두렁밭두렁', '별농부들', '새싹농부들' 등이 있으며 농촌진흥청 주관 2017강소농창조농업대회에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의욕 넘치는 젊은 인재들이 강소농에 많이 참여한다면 영광농업환경을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미래농업을 이끌 갈 주제로 양성할 계획이다.

강소농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지도기획 담당 ☎061-350-4830, 4831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명품사과 명성 잇는다

문자사과로 고부가가치 생산·기업-농가 상생 네트워크 구축



문자 사과는 하트 모양 기업 로고, 합격 문구 등을 넣은 사과를 말한다.

장성군은 사과에 문자나 문양을 새기면 지역 특산품인 사과의 부가가치가 향상돼 농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격 기원' 문자를 새겨 수확능력시험 전에 판매하거나 특정기업체의 이름이나 로고를 새긴 홍보용 사과를 생산해 판매하면 일반 사과보다 높은 가격에 사과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내 기업체와 농가의 계약판매 등을 촉진할

으로써 상생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장성군은 밝혔다.

장성군은 문자·문양 스티커 제작을 지원해 농업인들의 문자 사과 생산을 도울 방침이다. 특히 문자 사과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포장제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캐릭터 포장재 등으로 사과를 날개 포장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겠다는 것이다.

사과는 생산량이 수효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성의 특산품이다. 전남에서 가장 넓은 재배지를 자랑하는 장성 사과는 다른 지역보다 한두 달가량 늦게 수확하는 게 특징이다 사과 재배지의 최남단인 장성은 서해풍 덕분에 강추위가 없다. 서리는 물론이고 첫

눈까지 맞고 자라기 때문에 당도, 강도, 식감이 뛰어나다 지난해 장성엔사과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만)의 사과가 제3회 전국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도 이처럼 장성 사과의 상품성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장성군은 문자 사과가 장성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특화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사과는 전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표 특산물"이라면서 "문자 사과가 장성 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틈새 상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장성군이 지역 특산품인 사과를 특성화하는 사업에 나선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사과에 문자를 새겨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자 사과' 사업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 안전한 대한민국 전가용-4차원 대안개발연구소
- 무심과 책임의 바탕을 이룬다 풍력개발연구소
- 도심 속 조화로운 청정에너지 연료전지개발연구소
- 위기철의 생명지킴이를 이룬다 원형에너지개발연구소(주)친
- 미래에너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개발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